



**한우협회 전북지회, 한우고기 5천만원 상당 기탁**

(사)전국한우협회 전북지회(회장 정윤섭)는 도내 저소득층 정에 전달해달라며 한우고기 1.515kg(5,000만원 상당)을 전북도에 기탁했다.

15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진행된 기탁식에는 김광영 도지사와 (사)전국한우협회 정윤섭 지회장, 한양수 부회장, 전북한우육종협회 박승술 이사장, 전북한우협회장 김희동 조합장,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동수 회장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모두가 함께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힘든 상황을 극복해 나가길 바라는 한우협회 회원들의 마음을 담아 추진하게 됐다.

(사)전국한우협회 전북지회는 지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장학금과 한우고기 나눔행사를 통해 7억원을 기부하는 등 온정을 지속적으로 전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이웃사랑·지역사랑, 청년회가 한다’**

**무주 설천면 청년회, 지역행사 자원봉사·재능기부 귀감**

무주군 설천면 청년회 회원(30여 명)들의 지역과 이웃사랑이 훈훈함을 불어오고 있다. 이들은 주기적으로 지역 내 환경 정화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재능기부와 장학금 기탁 등 다양한 방법으로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또 농경지와 하천 변에 버려지거나 농가와 마을 집하장 등지에 보관 중인 농약 공병을 매년(상·하반기 연 2회) 수거·판매하는 데 올해는 6만 4천여 개를 수거·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익금은 설천면 발전회 기금을 더해 공병 1개당 1백 원씩 주민들에게 환원하는 등 주민수익 창출에 기여하고 있으며 탄소중립 실천 운동 확산에도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설천면 청년회 김기형 회장은 “논과 밭, 하천 등에 버려진 농약 공병이 수질과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자연경관을 해치는 요인이 되고 있다”라며 “이를 막기 위해 회원들이 1년이면 4만 개 이상의 농약 공병을 수거해 깨끗한 무주 만들기에 기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해마다 면민의 날 행사에서는 회원 가족들이 함께 이·미용 봉사하고 무료 찾집 운영, 그리고 간



식 부스 운영 등에 나서고 있으며 지난 8월 제9회 덕유산의병길 체험행사에서는 행사 참여자 안전을 위한 교통정리에 앞장서 귀감을 보였다.

청년회 회장단이·취임식 때는 축하 화환 대신 받은 쌀과 생필품을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해 기탁하고 있으며 설천면 초·중·고등학교 졸업생에게도 매년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훈훈함을 전하고 있다. /무주=전문선기자

**남원시 도통동, 일상 돌봄·주거 지원 봉사활동**

남원시 도통동 행정복지센터는 시청 일자리경제과 ‘가가호호 안전 닥터’ 사업과 연계, 지역 내 저소득 위기가구를 방문해 정리수납 및 안전점검 등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이 위기가구는 약 25년 전 배우자와 사별 후 홀로 지내는 1인 중장년층(남) 지체장애인으로 극심한 통증에 매일 아침 병원에 가서 6시간씩 정맥주사를 맞는 상태였으며, 관절과 벽돌로 지어진 집에 정리되지 않은 온갖 약과 물건들이 뒤덮여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도통동은 일상돌봄 지원 서비스 신청, 기타 물품 지원 등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집안에 방치된 쓰레기뿐만 아니라 싱크대, 냉장고까지 꼼꼼하게 정리 및 점검을 진행했다.

특히 시책 사업인 ‘추운 겨울 따뜻한 동행 복지바람이요’와 연계해 창문에 보온 커튼을 설치했다.

김윤자 도통동장은 “오늘 나눈 사랑의 손길을 이어받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기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대, 지적·측량기사 자격증 12명 최다 합격**

전주대학교 부동산국토정보학과는 올해 12명의 지적기사와 측량기사를 배출했다고 15일 밝혔다. 매년 2~3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던 것과 비교해 2023년은 역대 최다 합격이다.



이에 따르면 2022년 2학기부터 지적 및 공간정보 실무전문가를 전임 교수로 초빙해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지적직공무원 등에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집중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부동산국토정보학과는 작년 10월부터 겨울·여름방학을 포함해 5회에 걸쳐 비교과 과정의 자격증 대비 특강반을 운영, 특강반에 참여한 학생들은 대부분 기술 자격증을 취득했다. /정은성 기자

**진안군, 제3회 바르게살기운동 한마음대회 개최**

바르게살기운동 진안군협의회(회장 최순석)는 15일 오전 10시 30분 ‘제3회 바르게살기운동 한마음대회’를 김종필 진안부군수, 관내 기관 사회단체장, 회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안문화회집 마이홀에서 개최했다.

이번 한마음대회는 정직한 개인 더불어 사는 사회 건강 국가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한 회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한국문화예술진흥회 원용빈 진안지부장과 세모네도 도서관 유지화 관장의 멋진 사회로 가수 및 문화예술 공연과 유공자 포상 등 본행사가 더욱 빛을 발했다.

특히 이날 행사를 위해 바르게살기운동 전라북도협의회 이대갑 회장, 김제시협의회 이권재 회장, 남원시협의회 성용경 회장, 완주군협의회 유정식 회장, 장수군협의회 안중현 회장, 무주군협의회 김민성 회장 등이 참가했다.

유공자 포상으로는 협의회 발전에 공을 세운 5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고, 특히 시부모를 지극 정성으로 봉양한 안천면 김이나 씨가 효부상을 받아 주위에 큰 귀감이 됐다. /진안=우태만기자



최순석 회장은 대회사에서 “갑자기 추워진 날씨도 이대갑 전라북도협의회 이대갑 회장님을 비롯해 각 지역 회장님들과 많은 회원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기자



**비전대-원광보건대, 혁신융합 인재양성 협약**

전주비전대학교 에코업 혁신융합대학사업단(단장 김영주)은 지난 13일 원광보건대학교 바이오엘스 혁신융합대학사업단과 첨단분야 혁신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혁신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콘텐츠에 대한 공동 개발 및 운영, 비교과 연계 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운영을 통한 학생 혁신 역량 강화, 양 기관의 활용 가능한 인프라 공유 및 공동 R&D 개발 등에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정은성 기자



**남원 금지면, 찾아가는 건강교실 운영**

남원시 금지면 행정복지센터는 시 농촌종합지원센터 금지면 사회서비스팀과 협력해 찾아가는 건강교실 ‘손발튼튼! 건강튼튼!’을 운영하고 있다. 건강교실은 주 1회 마을회관 및 경로당을 방문해 혈압과 혈당 측정, 건강상담을 통한 맞춤형 건강 교육을 제공하고, 어르신들의 손발 관절 건강을 위한 족욕, 기구를 이용한 발마사지, 파리핀 마사지, 근육 테이핑 등을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호응과 관심을 끌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현대옥, 아름다운 교육공동체상에 500만원 후원**

아름다운 교육공동체상 위원회(위원장 두재균)가 주최·주관하는 제5회 아름다운 교육공동체상에 전주현대옥(대표 현성국)이 교육발전기금 500만 원을 후원했다고 15일 전했다.

이날 열린 후원금 전달식에는 현성국 대표, 두재균 위원장과 소동하 감사, 이강선 집행위원장, 박효정 사무총장, 김인희 재무국장, 박수인 홍보국장 등이 참석했다.

현성국 대표는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해 수고하는 교직원과 교육기관 및 단체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 도 전북 교육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의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두재균 위원장은 “경기침체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전북 교육 발전을 위한 남다른 관심으로 후원해 주시길 감사드립니다”며 “교직원과 교육기관 및 단체가 보람과 긍지를 갖고 근무할 때 그 혜택은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과 지역사회



에 돌아갈 것이기에 이 상의 의미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정은성 기자



**김제시, 농업업무담당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농업업무담당 공무원 35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 13일~14일(2일간)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올 한해 재해업무와 일선에서 농업행정 업무에 노고가 많았던 농업업무 담당 공무원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과 주요 농업시설 견학 등을 통한 역량강화로 진행됐다.

교육참가자들은 1일차에는 ‘김제시 농업 미래 방향’이라는 주제로 2일차에는목포시 일원서 마음의 위안을 얻는 시간을 가졌다. /김제=곽노태 기자



**임실소방서, 재난대응 긴급구조 종합훈련 실시**

임실소방서(서장 한동규)는 15일 임실군 청소년수련원에서 대형 재난 현장대응능력 향상 등을 위한 2023년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에는 경찰서, 보건소 등 10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장비 27대와 인원 183명이 동원됐다.

훈련은 재난 상황전파 후 자위소방대 초기 대응을 비롯한 긴급구조기관 투입과 협력체계, 다수사상자 구급 대응활동, 긴급구조 통제단 가동·재난대응 통합지원훈련 등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훈련은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지원기관·단체의 역할 분담과 통합 지휘체계 확립을 통해 긴급구조 대응 재난수습 능력 향상을 위해 실시됐다. /임실=전홍영 기자



**진안 안천면 ‘고향땅 가든’ 착한가게 4호점 탄생**

진안군 안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이정희, 민간위원장 석우석)는 15일 안천면 착한가게 4호점으로 동참한 ‘고향땅 가든’(대표 최진숙)에 착한가게 인증 현판을 전달했다.

고향땅 가든 최진숙 대표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가게를 운영하며 발생한 수익을 지역 내 어려운 이웃과 나눔을 실천하고자 참여하게 됐다.

착한가게 사업은 지역사회의 아름다운 기부문화확산과 관내 소외계층 발굴을 위해 소상공인이 매월 3만 원 이상을 전북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탁하면 이를 ‘착한가게 현판’을 통해 인증하고 있다.

기탁된 성금은 공동모금회를 거쳐 관내 저소득층을 위한 안천면 지역사회협의체 특화사업비로 지원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기자



**전주기전대, 입사지원서 공모전 시상식**

전주기전대학 진로취업지원센터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지난 14일 입사지원서 우수 작성자를 대상으로 입사지원서 공모전 시상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기존 취업특강과 연계한 자기소개서 작성 및 전문가 컨설팅 과정을 통해 서류전형을 사전에 대비함으로써 취업실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입사지원서 공모전 평가항목은 입사지원서와 자기소개서 두 가지 큰 항목에 대해 형식적 요소 완결성, 희망 직무와 내용의 유기적 연계성 및 인과관계성 등을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했다.

선정된 우수자들에게는 대상(1명·30만원), 최우수상(1명·20만원), 우수상(2명·15만원), 장려상(3명·10만원) 시상금을 통해 취업활동을 격려했다. /정은성 기자



**시온기독교교회센터, ‘10만명 수료식’ 개최**

10만 명 이상 신자들이 12일 한 자리에 모여 진행한 ‘10만 수료식’이 개최됐다. 신천지예수교회의 성경교육기관인 시온기독교교회센터(총원장 탄영진)는 이날 대구스타디움에서 ‘신천지 12지와 시온기독교교회센터 114기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번 10만 수료식에서 배출한 수료생은 총 10만 8084명이다. 2019년 10만 3764명, 2022년 10만 6186명에 이어 세 번째 10만 명 이상 수료생을 배출한 것이다.

이날 수료식은 페트리 라저로이유 루마니아 헌법재판소 전 판사 등 각국 인사들의 축하영상 방영 등으로 이어졌다. 이만희 총회장은 기념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좋은 세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수료생과 축하객을 격려했다. /김옥기기자